

순창대표 청국장용 종균 출시

순창군, 전용 발효조 분리운영 통해 상품화 성공

순창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가 전통장류에서 분리한 토종 청국장용 종균을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고 순창군이 지난 25일 밝혔다.



순창군은 이번 분말 형태의 종균 상품화로 인해 국내 관련 업체를 통한 위생적인 청국장 생산은 물론 국내 청국장 제조 기술 향상과 시장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국장용 종균인 고초균을 이용해 효소,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고부가가치 건강제품 생산이 가능해 관

련 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종균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 중에는 이와 같은 청국장용 종균을 개발한 기업이 없어 그동안 청국장용 종균을 구입할 경우가 마땅치 않아 나로(rato)균이나 바실러스균을

수입해 사용해왔다.

이번에 첫 출시된 순창 청국장용은 자연발효 전통장류에서 분리한 균주로서 전통 청국장의 맛과 풍미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뒀다.

균이 상품화된 균주는 점질물 생산과 단백질 분해 활성이 매우 뛰어나 감마PGA와 아미노페닐소를 고생산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향산과 활성을 나타내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생산하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인 바실러스세테우스를 억제하고 인체에 유해한 바이오테나민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다고 위생적인 청국장 생산이 가능하다.

【순창=이영원 기자



순창군이 여성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순창'

순창군, 여성 취·창업 위한 인재양성 교육 호응

순창군이 여성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체결하고 '다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순창'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돌봄·여성의 대표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여성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판비리스타(수제청) 3급 실무 연수 과정이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수제청 제조에 관심이 있거나 농산물을 활용한 취·창업 예정이 있는 순창 여성 군민 15명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본 교육은 수제청의 이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수제청 실습 등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한국교육문화재단진흥원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수제청은 핸드메이드 플랫폼에서 인기가 높아 연매출 13억을 달성하는 '엄마시장'이 화제가 된 이후 가정주부의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 경로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도 수강생들의 호응도가 높고 수강을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 다음 차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군은 이 흐름을 이어서 앞으로 다양한 여성 인재양성 교육을 발굴하여 여성 군민의 자기계발과 전문가 양성, 취·창업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안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키워 다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순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의 여성인재양성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진흥팀(650-1258)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육정호 상생협력 근본대책 마련을"

임실 지역단체, 정읍시민단체에 촉구

임실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박길수),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임실군 지역본부(본부장 박민식),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박영준)와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김경운), 하문읍 지역발전협의회(회장 김원수), 육정호물살리기 대책위원회(회장 김경운)가 25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안전한 식수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의 육정호 상생협력선언서 이행, 광역상수원 안전관리 대책 수립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 관계 및 향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임실군 지역단체들은 입장문 전달에 앞서 임실군 운암면 주민들은 1965년 준공된 섬진강댐으로 인해 두 번이나 삶의 터전을 잃고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6년 동안 정읍시 상수원 공급을

위해 육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실군민들이 받는 등 아직까지도 아픔의 흔적이 많은 곳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읍시민의 식수는 육정호 물(일일 27만톤)과 동진강 물(일일 8만톤)이 합쳐져 일일 3만톤 정도의 극히 일부만 정읍시민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결국 정읍시민의 식수는 육정호 물과 동진강 물이 합쳐져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동진강(도원천)의 수질 여하도 정읍시민의 식수원 오염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불 때, 육정호의 개발보다는 평사리천과 동진강 주변의 많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과 농경지의 잔류 농약 등 비점오염물이 식수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간



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육정호는 총유기탄소량(TOC) 기준 1등급 수준으로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10여년에 걸쳐 호수 상·하류에 하수처리시설 9개소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약 1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덧붙였다.

또한 육정호는 임실군 강진면에서도 취수되어 임실군 서부지역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꾸준히 협력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 7대 정책비전 밝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남원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승호 예비후보는 25일 남원시장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답답한 남원의 현실을 확 바꿔야겠다는 각오와 다짐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7대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의 7대 정책비전은 ▲남원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리신원 중심도시로의 도약 ▲관광정책을 혁신해 남원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화



시키고 관광투원 주변을 스마트관광광지로 조성하고 요천 일원 수변관광지 개발 ▲대학 주도 성장과 청년 문화육성 정책을 역점 추진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 전문대학원 설립에 총력 다하고 서남대 폐교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특성화대학 유치 ▲지역경제와 산업을 부흥시킬 지

【남원=김기두기자

임실군, 소아·청소년대상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임실군이 오는 31일부터 만 5세~11세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1·2차)을 시행한다.

소아 접종은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8주(56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게 된다.

소아 중 면역결핍자, 당뇨,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라면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그 외 일반 소아는 자율접종을 시행한다.

또한 기존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고위험군은 접종이 권고되지만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 또는 임실군 보건의료원

(063-640-3354~5)에서 가능하고,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인 다사랑의원(임실읍 소재) 1곳에서 접종한다.

접종 안전성과 이상 반응 점검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만 12세~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진행 중이다.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이다.

만 12세~17세 3차 접종은 현재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카카오톡·네이버 등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여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시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자의 동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생생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선정지연

남원시는 2022년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지원사업에 10개 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마을당 400만원~800만원 정도를 지원,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과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00만원(도비 2,240만원, 시비 3,36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생생마을 만들기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주도로 농촌마을 고유의 경관 먹거리, 넉넉한 인심, 농촌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을 기획, 도시민에게 캠핑 장소로 제공하여 도농교류를 통한 과소와 마을에 활력 창출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 기초반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에서는 미러캔버스, 망고보드 등을 활용하는 카드뉴스, 상세페이지 등 홍보물을 직접 농가들이 제작하는 정보화 교육 기초반을 3월 21일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았으며,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5회 교육이 구성되어 있다.

교육에서는 농장의 농산물 상품 등 사진을 각종 디자인 요소와 템플릿을 활용해 카드뉴스, 상세페이지를 제작해 보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까지 해보는 것으로, 이후에도 라이브커머스 관련 궁금사항 1인 미디어 방송을 위한 심화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보화 교육관련 문의는 농업인교육계(063-620-8015)로 하면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정보화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다양한 마케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